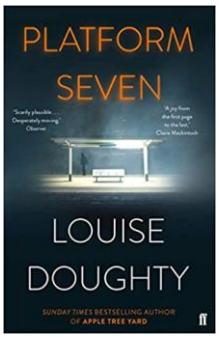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PLATFORM SEVEN

가제 : 플랫폼 세븐 - 승강장에서 연달아 일어난 자살 사건의 연결 고리는?

저자 : Louise Doughty

출판사: Faber & Faber

발행일: 2020년 4월 30일

분량 : 496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550,000부 판매를 기록한 베스트셀러 <Apple Tree Yard>로 유명한 선데이 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의 근래 화두 중 하나인 '데이트 폭력'를 다룬 신작**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판권 계약**

*** "루이스 다우티는 한계점에서 서스펜스를 어떻게 구축하면 되는지 잘 알고 있는 훌륭한 이야기꾼이다." - <더 타임즈>**

새벽 네 시, 피터버러 기차역은 아주 한산했지만 결코 잠들어 있지는 않았다. 경비원은 CCTV 화면을 들여다보고 차를 마시고 있었고 밝은 오렌지색 옷을 입은 청소부들이 플랫폼 바닥을 닦고 있었다. 안전 요원 달마르는 주로 밤에 일하는 안전 요원이었는데 자신의 직업을 그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여기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소말리아에서 온 난민 출신으로 12년 전 영국으로 와 난민 보호소에서 생활하며 여전히 폭탄이 떨어지는 악몽에 시달렸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에 감사하며 두 시간 마다 플랫폼, 화장실, 대기실을 오가며 철저히 감시했다. 오늘은 비교적 사건 사고가 적은 화요일이었고 자전거 도난 사건도, 음주 사건도 없는 평범한 날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달마르는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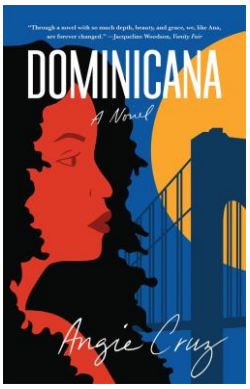
순찰을 마친 달마르는 언제나 자신을 지지해주는 경비원인 톰과 CCTV를 바라보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고 화면 속 7번 플랫폼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곳에 있던 리사는 한 남자가 7번 플랫폼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18개월 전부터 유령의 몸으로 이 역을 떠돌고 있었던 리사는 7번 플랫폼의 첫 열차는 6시나 되어야 오고, 곧 도착할 기차는 화물 열차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사람이 나타난 것을 수상하게 여겼다. 60대 정도 되 보이는 그 남자는 이 역에서 가장 조용한 곳에 있는 한 벤치로 다가가 앉았다. 그는 조용히 레일 위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남들처럼 그 곳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지도 않고 곁에는

가방이나 다른 짐도 없었다. 리사는 굳이 CCTV 사각지대이자 대기실 벽에 가려진 이 구역까지 온 그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직감적으로 알아챘다. 리사는 달마르와 톰이 여전히 수다에 빠져 있는 사이 어떻게든 그에게 후회할 짓은 하지 말라며 설득하고 싶었지만 유령인 리사는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었다. 얼마 후, 뒤늦게 선로 위에 선 그 남자를 발견한 달마르가 달려와 그를 향해 소리쳤지만, 마치 베어지길 기다리며 서 있는 나무처럼 꼿꼿이 선 그를 제 시간에 도착한 화물 열차가 달려와서 그대로 받아버렸다.

이후, 리사는 18개월 전 자신은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고와 7번 플랫폼 그리고 그 남자의 자살 사건 사이에 연결 고리가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기억 상실증에라도 걸린 것처럼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왜 죽게 되었는지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 순경 록하트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역시 그녀의 죽음은 단순 자살 사건일 뿐이었다. 하지만 최근 일어난 이 자살 사건에 대해 몰두하게 되면서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기억을 조금씩 되찾을 수 있었다. 그 기억이란 그녀가 죽기 전 마지막 몇 년간의 기억으로, 리사와 그녀의 남자 친구 매튜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었다. 리사가 떠올린 첫 기억은 매튜와의 저녁 식사 자리였는데 매튜는 대화를 하던 중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리사가 그에게 자신들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자 그는 오히려 리사가 피해망상에 휩싸였으며 과민반응을 하는 것 같으니 전문적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리사는 당시 그로부터 얼마나 심각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반복적으로 폭력에 시달렸는지 기억해냈다. 그리고 그녀의 주위에는 가족은 물론이고 모두 매튜를 모두 완벽한 남자친구라고 믿으며 아무도 리사를 도와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매튜는 의사라는 자신의 직업을 이용해 리사의 자존감을 무너뜨렸고 그녀에게서 행복을 빼앗아 죄책감에 빠지도록 만들었다. 결국 리사는 자신의 죽음이 매튜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자살한 남자와 리사의 죽음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사고를 당해 억울하게 유령이 된 한 여자의 목소리를 통해 인간 관계의 복잡성, 데이트 폭력에 대해 다루고 있는 기묘하고도 슬프지만 휴머니즘적인 스릴러이다.

<저자 소개>

아홉 권의 소설을 쓴 루이스 다우티 (Louise Doughty)의 작품 중『Apple Tree Yard』는 영국과 아일랜드 10대 베스트 셀러였으며 CWA Steel Dagger Award , National Book Awards Thriller of the Year의 최종 후보작이기도 했다. 또한 그녀는 라디오 드라마와 단편 소설로 여러 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영국 및 국제 신문사들의 비평가 및 문화 논평가로 활동하고 있고 Man Booker Prize와 Costa Novel Prize의 전 심사위원으로 지낸 경력이 있다.



제목 : DOMINICANA

가제 : 도미니카나 - 불행한 결혼 생활, 불안한 이방인의 삶을 극복하고 아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저자 : Angie Cruz

출판사: John Murray

발행일: 2020년 1월 23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일반 소설, 여성 소설

*** 2020년 Women's Prize 후보작, 2019 가을 타임지 선정 기대작, 2019년 워싱턴 포스트 '가을에 꼭 읽어야 할 책', 뉴욕타임즈 '9월에 꼭 읽어야 할 책', 2019년 퍼블리셔 위클리 선정 금주 최고의 책**

*** "억압적인 가부장제 사회와 여성 불법 이민자로서 겪는 이중적 고통에 대한 초상화" - 옵저버**

*** "놀라울 정도로 신선한, 바로 지금을 위한 이야기"- 2020년 Women's Prize의 심사위원 마사 레인 폭스**

*** "결혼이 갖고 있는 거래적 속성과 여성성과 시민에 대해 다루고 있는 이야기 "- 뉴욕 타임즈 북 리뷰**

열다섯 살 아나 칸시온은 여느 도미니카 소녀들과 마찬가지로 고향을 떠나 미국 같은 멀고 큰 나라로 가는 것은 단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후안 루이스가 그녀에게 청혼하며 같이 뉴욕으로 가서 살자고 한다. 이 결혼은 아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앞으로 그녀의 삶에는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스물 여덟 살의 후안 루이스가 아나에게 처음 청혼한 것은 아나가 열한 살 때였다. 당시 아나는 아직 발육도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후안뿐만 아니라 많은 남자들이 아나나 아나의 언니인 테레사에게 구혼을 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오곤 했다. 당시 아나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고 스스로도 자신이 다른 여자 아이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아나의 빛나는 초록빛 눈을 바라보면서 아나는 그냥 예쁜 여자 아이가 아니라 호기심을 불러 일으킬만한 아름다움을 가졌다고 극찬했다. 때문에 아나의 엄마는 서둘러 아나의 미래를 계획해 두지 않으면 아나의 인생이 아름다움 때문에 망가질지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몇 해 전 뉴욕으로 건너가 부자가 되어 돌아온 그 유명한 후안의 형제들이 아나의 집을 찾아왔다. 후안은 술에 취해 웅얼거리는 목소리로 아나를 뉴욕으로 데려가 줄테니 결혼하자고 말했고 그녀를 향해 세레나데를 불렀다. 그리고 노래를 마친 후안은 아나에게 가까이 얼굴을 대더니 아나를 향해 마구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아나는 그런 후안마저 두렵게 만들 정도로 강한 눈빛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후안은 고함을 멈추지 않았고 아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웃어댔다.

그 후, 아나의 엄마는 아나와 후안의 결혼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아나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아나의 아름다운 두 눈을 보며 엄청난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아나에게 후안의 프로포즈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으며 어떤 남자든 여자가 하기 나름이라고 말했고 후안이 집에 찾아올 때면 아나를 예쁘게 꾸미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아나의 부모님은 아나가 열다섯 살이 되는 해에 아나와 후안을 약혼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아나는 비자와 법적인 문제 때문에 서류 상으로는 열아홉 살로 나이를 조작한 후, 사실은 열다섯 살이 된 1964년 그와 결혼했다. 그리고 첫 날밤 아나는 후안과 단 둘이 호텔에서 공포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다음 날 그와 함께 눈이 내리는 추운 뉴욕으로 떠났다.

뉴욕에 도착하자 후안의 막내 남동생인 세자르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후안과 달리 아나를 다정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한편 아나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리 뉴욕이라는 도시는 흑인과 이민자에게 그리 친절한 곳이 아니었다. 심지어 후안은 아나에게 절대 그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말고 입을 꾹 다물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후안은 어느 날부터인가 아나를 때리기 시작했고 일을 하는 중에도 술을 입에서 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나는 임신을 했고 매일 수척해져 갔다. 아나는 엄마와 남편의 말대로 점점 인생에서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후안은 점점 더 강압적으로 굴며 아나에게 그 누구에게도 현관 문을 열어주어서는 안되며 무슨 일이 있어도 바깥에 나가서는 안 된다며 아나를 더러운 아파트에 거의 감금 상태로 두려했다. 하지만 아나는 그 공포 속에서도 저항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몇 년 후, 정치 상황이 악화되면서 아나와 후안은 도미니카로 돌아왔고 덕분에 아나는 조금이나마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아나는 자신만의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세사르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만든 식품을 공장 노동자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좀 더 안전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미국으로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데려갈만한 자금을 오르게 되었다. 또한 아나는 사랑 없는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 대신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아나는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 아나의 두 번째 아메리칸 드림은 과연 이루어 질 수 있을까? 아무 것도 모르고 늘 억압 속에서만 살았던 한 소녀가 자신의 목소리를 잃지 않고 성장하여 이 세계에서 당당히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고된 여정을 그린 소설이다.

<저자 소개>

앤지 크루즈 (Angie Cruz)는 2007 년 IMPAC Dublin Literary Award 최종 후보작이었던 『Let It Rain Coffee』와 『Soledad』의 작가이다. 그녀는 New York Times, VQR, Gulf Coast Literary Journal 및 기타 매체에 작품을 발표한 바 있으며 New York Foundation of the Arts, Yaddo, the MacDowell Colony의 펠로우십 멤버이다. 또한 저자는 문학 및 예술 저널 인 Aster (ix)의 창립자이자 편집자이며 피츠버그 대학교 영어과 부교수이다. 이 소설은 저자 자신의 어머니의 이야기로부터 영감을 받아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목 : THE IMPOSTER

가제 : 타인의 삶 - 수상한 부부와 이들의 비밀, 그리고 한 여자의 광적인 집착!

저자 : Anna Wharton

출판사: Mantle

발행일: 2021년 3월

분량 : 407 페이지

장르 : 스릴러, 추리

*** 선데이 타임즈 베스트셀러 <Somebody I Used To Know> 작가의 데뷔 소설!**

클로이 허드슨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사연에 매료되어 있다. 한 지역 신문사의 신문 보관 담당자인 클로이는 25년 전에 실종된 어린 딸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고 있는 한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되었고 머지 않아 그 이야기에 푹 빠져버린다. 그러던 중 클로이의 삶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오고 클로이는 이 변화를 그 가여운 두 부부의 이야기 속으로 파고들 기회로 삼는다. 클로이는 과연 실종된 소녀에 관한 진실을 밝혀 낼 수 있을까? 소설을 읽는 내내 불안한 기운과 긴장감이 넘치는 심리 스릴러이다.

클로이는 일하는 중 종종 사무실을 몰래 빠져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외할머니 그레이스가 괜찮은지 살피기 위해 집으로 갔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그레이스는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면 이미 죽고 이 세상에 없는 딸 '스텔라'를 찾아 헤맸고 클로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댔다. 하지만 클로이는 언제나 그레이스에게 먹을 거리를 챙겨 준 다음 문들을 철저히 잠근 후, 다시 상사의 눈을 피해 어두운 사무실로 돌아가곤 했다. 그녀가 하고 있는 일은 신문을 정리하고 보관하는 일이었는데 많은 것들이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곧 사라져버리게 될지도 모르는 직업이었다. 하지만 이 일만이 그녀가 할 줄 아는 유일한 일이었고 그녀의 관심사 역시 늘 이렇게 세계 각지의 타인의 이야기를 읽는 것뿐이었다.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클로이는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자 애정의 대상인 그레이스에 대해서 생각하던 중 사회 복지 센터에서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하지만 클로이는 자신들의 인생에 다른 사람의 도움 같은 건 필요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고 모든 전화를 거부했다.

다음 날, 최근 클로이가 사무실에서 자주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사가 징계 차원에서 엄청난 양의 신문 정리를 맡긴다. 일에 몰두하던 클로이는 무심코 회사 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받는다. 전화를 건 사람은 그레이스의 담당 사회복지사 클레어였다. 하지만 이번에도 클로이는 그녀의 말들을 무시해버린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레이스를 데리고 엄마의 묘지에 갔다가 잠시 물을 가지러 간 사이 그녀를 잃어버리고 만다. 경찰서에 간 클로이는 어쩔 수 없이 사회복지사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알려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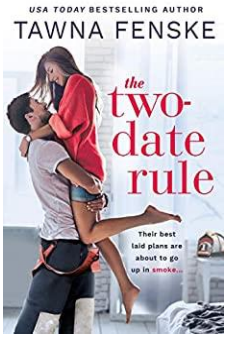
초조한 마음으로 사무실에서 일하던 클로이는 오래된 신문에서 우연히 1979년, 아빠와 공원에서 그네를 타던 중 아빠가 잠시 차에 다녀온 사이 실종된 네 살 소녀 안젤라의 실종 사건에 대해 알게 된다. 클로이는 기사를 읽다 잠시 멈추고 아빠 패트릭과 그의 아내 모린의 사진 바라본다. 얼굴에 가죽만 남은 남편의 얼굴에 비해 아내 모린의 덜 괴로워 보였다. 그리고 모든 사진들에서 패트릭이 모린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또한 클로이는 안젤라가 살아 있다면 자신과 같은 나이인 스물 아홉 살일 것이라는 것과 안젤라의 가족이 할머니의 집과도 매우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또한 할머니를 잃어버린 지금 클로이는 그 누구보다도 그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침내 클로이는 할머니를 찾았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는다. 하지만 클로이가 합당한 보호자가 아니라고 결론 지은 사회 복지사의 결정에 따라 할머니는 보호 시설에서 살게 되었고 클로이 역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다. 절망에 빠진 클로이는 텅 빈 집으로 들어가는 대신 1979년 안젤라가 실종되었을 당시의 모습을 상상하며 여전히 안젤라의 부모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가 그 집안을 유심히 들여다본다.

그 후, 클로이는 이상하게도 이 실종 사건에 대해서 잊을 수가 없어 이것저것 조사를 하던 중 패트릭이 한 번, 딸의 실종과 관련된 유력한 용의자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얼마 후 클로이는 이사 갈 곳을 구하던 중 패트릭과 모린이 하숙인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들의 집에 살면서 직접 안젤라의 실종 사건과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 부부를 남몰래 관찰하던 중 클로이는 그들에게 예상했던 것 보다 더 많은 비밀이 있다는 것과 자신 역시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클로이는 과연 그들의 비밀을 이용해 두 사람과 자신 사이에 유대감을 쌓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지, 아니면 과거가 영원히 묻히는 것을 막아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거침없는 반전과 팽팽한 긴장감이 돋보이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애나 와튼 (Anna Wharton)은 The Times, The Guardian, The Sunday Times Magazine, Grazia 및 Red를 포함한 여러 신문사에서 20년 이상 기자로 활동했으며, The Daily Mail의 편집장을 역임 하기도 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않은 채, 선데이 타임즈 베스트셀러인 『Somebody I Used To Know』와 Orwell Prize의 최종 후보작이었던 『One Woman's Fight Against FGM in Britain Today』를 포함한 네 권의 회고록을 집필했다. 이 책은 그녀의 첫 소설이다.



제목 : TWO-DATE RULE
가제 : 데이트는 두 번만!
저자 : Tawna Fenske
출판사: Entangled
발행일: 2020년 3월 1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로맨스

*** USA Today의 베스트셀러 작가의 신작 로맨스**
*** Readerlink의 Need-to-Read program 선정 도서**

윌라 프랭크에게는 지켜야 할 규칙이 딱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같은 사람과 딱 두 번까지만 데이트하는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레이디 빌먼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규칙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한다. 윌라는 끝까지 자신의 규칙을 고수할 수 있을까? 예상치 못한 사랑에 빠져들게 된 두 사람 사이의 밀고 당기기와 성적 긴장감이 돋보이는 로맨스이다.

성공한 사업가이자 웹 디자이너인 윌라는 새 프로젝트를 위한 회의까지 연기하고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카일라와 아이슬린을 따라 한 붐비는 스트리퍼 클럽에 왔다. 얼떨결에 이곳에 온 윌라는 주변에 경찰복 코스튬을 입고 있거나 아니면 거의 나체로 바닥에 누워 있는 남성 스트리퍼들을 보니 무척 당황스러웠다. 윌라는 대학시절 공부밖에 몰랐던 친구들이 어쩌다 이런 취향을 가지게 되었는지 의아했다. 그러던 중 화장실이 급한 친구들을 데리고 클럽 구석구석을 누비다가 우연히 반쯤 벗은 소방관 복장을 하고 있는 한 남자를 마주친다. 윌라의 친구들은 그 남자를 보자마자 좋아서 쑥떡거리기 시작했고 윌라는 친구들의 호들갑에 마지못해 그를 슬며시 바라보았다. 둘은 눈이 마주쳤고, 윌라는 친구들을 대신해 자신이 먼저 입을 열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윌라는 그가 클럽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붐비는 여자 화장실 대신 클럽 직원들이 사용하는 남자 화장실을 쓰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의 이름은 '그레이디 빌먼'으로 그는 사실 소방관 복장을 한 스트리퍼 댄서가 아닌 진짜 삼림 전문 소방관이었다. 보통 일을 마치면 곧장 샤워를 하기 위해 집으로 향하곤 했지만 오늘은 자신이 속한 소방관 밴드의 음악 장비들을 돌려 받기 위해 이 곳에 잠시 들른 것이었다. 오늘도 화재를 진압하느라 지치고 허기가 진 그는 제대로 된 저녁 식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대뜸 윌라에게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밥을 사주면 원하는대로 해주겠다고 말한다. 화장실에 급한 친구들을 위해 그러겠노라 응한 윌라와 그레이디는 대화를 나누고, 둘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흐른다. 그레이디는 언제든 불이 나면 현장으로 달려가야 하는 특성상 안정적인 연애 관계를 맺기 어려운 상황이라 그저 짧게 데이트하는 것을 즐기는 편이었지만 왠지 윌라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어린 시절 실종된 엄마 대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의 보호자 역할을 하며 어렵게 자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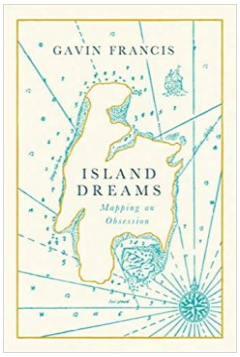
윌라는 관계에 대한 단단한 자존감을 갖지 못했고 자신의 결점을 극복하기 위해 거의 강박적으로 일에 집착하며 완벽주의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 한편 그레이디는 열 명이나 되는 형제들과 비교적 화목한 대가족 가정에서 자라긴 했지만, 직업적 특성상 자주 집을 비운 아버지 대신 혼자서 열 명의 아들을 홀로 키워야 했던 어머니의 고충과 그로 인한 부부 관계의 어려움과 갈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와 안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윌라에게 한 사람과 세 번 이상 데이트하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다면 그에게는 결코 한 사람에게 호감 이상의 애착을 갖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즉흥적인 면이 있는 그레이디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 밝힌 후 과감하게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다. 윌라는 일에 대한 생각 때문에 낯선 남자와 갑자기 데이트를 하는 것이 망설여지긴 했지만 그녀의 규칙에 따라 딱 두 번만 이 섹시한 남자와 데이트하는 것쯤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윌라는 그레이디와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데이트를 한 후 그에게 완전히 매료된다. 하지만 동시에 남자에게 빠져 자신의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게될까봐 두렵기도 하다. 그레이디 역시 윌라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지만 자신의 불안과 윌라의 걱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데이트 대신 '가벼운 만남'을 가지자고 제안한다. 그리고 그 후, 두 사람은 단 둘이 만나는 것이 아닌 단체 모임을 통해 미니어처 골프를 하러 가거나 그레이디의 대가족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만남을 가진다. 윌라는 그레이디의 부모님과 가족들을 만나면서 어린 시절 한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그레이디 역시 자신의 규칙을 깨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그레이디는 윌라와는 달리 당장 내일에 대한 계획도, 은퇴 이후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고 둘은 서로가 너무나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둘은 과연 자신들의 규칙과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차이점을 극복하고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게 될까? 서로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함께 어른이 되어가고 사랑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로맨스이다.

<저자 소개>

타나 펜스케 (Tawna Fenske)는 RITA (R) Award 최종 결선에 진출한 바 있는 USA Today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그녀는 주로 재밌는 반전이 돋보이는 따뜻한 로맨스물을 주로 쓰고 있다.

NON-FICTION



제목 : ISLAND DREAMS

가제 : 섬 예찬: 휴식, 독립, 모험의 의미

저자 : Gavin Francis

출판사: Canongate Books

발행일: 2020년 10월 1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에세이, 여행

*** "개빈 프랜시스는 훌륭한 작가이자 사려 깊고 매력적이며 엄청나게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인간이다." - 베스트셀러 작가, 빌 브라이슨**

*** "지도가 허구와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독성 있는 항해. 이 책 속에 수록된 귀한 신화와 오래된 전설들은 우리의 강박관념과 공통된 열정들을 보여주고 있다." - 이안 싱클레어**

처음 저자가 스코틀랜드 최북단, 셰틀랜드의 북쪽 섬 '운스트(Unst)'에 도착했을 때 그를 그곳까지 데려다 준 택시 기사는 이 최북단 섬에는 남극에서 건너온 검은눈 알바트로스가 살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 기사는 이어서 아마도 이 새가 이 엉뚱한 곳까지 오게 된 이유가 적도를 건넜다가 폭풍으로 인해 길을 잃고 헤매던 중 아래의 섬를 내려다보고는 "어, 꼭 우리 집 같네"라고 생각하곤 영영 이곳에 눌러 앉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저자는 바다의 경계 속에서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삶의 의무와 피곤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외딴 섬을 찾고 있었고 완벽한 섬만 찾아낸다면 마음의 짐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30 여 년간 섬들을 찾아 다니며 그 여정이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이 책은 바로 저자가 30 여 년간 여행하며 고립과 또 연결성에 대한 탐구를 기록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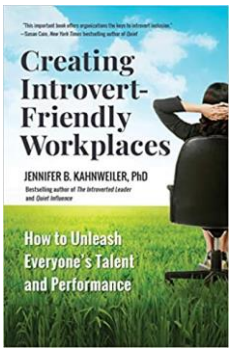
이 책에서 저자는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섬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지 탐구한다. 그는 자신의 여행 이야기를 심리학, 철학 및 문학의 위대한 항해와 혼합하여 섬의 중요성과 고립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 지역 사회 구성원 및 중년에 이른 부모로서 어깨에 막중한 짐을 지고 살아야 했던 시절과 페로 제도에서 에게해에 이르기까지 또 갈라파고스에서 안다만 제도까지 30 년 동안 특별한 여행을 하며 누렸던 자유로운 순간들을 비교하며 그는 오늘날 기술 덕분에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휴식과 독립, 애착이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살펴본다.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지도들이 삽입된 이 책은 때론 보르헤스의 미로 같은 꿈 속을 거니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하기도 하고 혹은 레베카 솔닛의 『A Field Guide to Getting Lost』,

WG 제발트의 『Austerlitz』를 떠올리게 하는 아름다운 에세이이자, 인간의 모험을 예찬하며 자석 같은 힘을 가진 오래된 지도들의 놀라운 힘을 보여주는 책이다.

<저자 소개>

개빈 프랜시스 (Gavin Francis)는 수상 경력이 있는 작가이자 영국 지역 보건의이다. 그는 선데이 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Saltire Scottish Non-Fiction Book of the Year Award 수상작인 『Adventures in Human Being』과 SMIT Awards 수상작인 『Empire Antarctica』를 포함한 4 권의 논픽션 작가이다. 또한 그는 Guardian, The Times, New York Reviews of Books 및 London Review of Books 에 글을 기고한 바 있으며 그의 작품들은 현재까지 18 개 언어로 출판되었다.



제목 : CREATING INTROVERT-FRIENDLY WORKPLACES

가제 : 내향적인 사람들도 일하기 좋은 직장: 내향인들을 위한 직장 문화 로드맵

저자 : Jennifer Kanhweiler

출판사: Berrett-Koehler Publishers

발행일: 2020년 6월 16일

분량 : 192 페이지

장르 : 경영

*** "이 중요한 책은 우리 조직에 내향적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열쇠를 제공한다."-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Quiet』의 저자 수잔 케인**

*** 이 책에서 저자는 외향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향적인 사람들을 위한 업무 환경을 만드는 법을 보여주면서 다양한 재능을 발굴하고 회사의 주요 문제와 과제에 대한 관점을 확장하는 귀중한 자원들을 제공한다."-LinkedIn 의 공동 설립자이자 『Blitzscaling』의 공동 저자인 리드 호프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목소리가 큰 사람들에게 더 주의를 기울이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 문화 내에서도 외향적인 사람들이 더 쉽게 환영 받는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리더십 연설가이자 내향인들의 옹호자인 저자는 요즘 같은 시대에 성별, 인종 및 민족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인지적 다양성을 넓혀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에서 그녀는 다양성, 형평, 포용의 물결이 활발해지고 그 범위 또한 확장됨에 따라 '내향성'이라는 자질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움직임 또한 자연스럽게 비슷한 흐름에 놓이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따지고 보면 결국 인구의 절반 가량이 내향적인 사람이지만 여전히 많은 조직들과 기업에서는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는 사람들에게만 합당한 보상을 허락하고 그들의 이름만을 기억하며, 아직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식 채용 문화와 직장 문화가 외향성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현재의 직장 문화와 업무 환경이 내향적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기업과 조직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향적인 사람들을 위한 챔피언'이라고 불리고 있는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리더, 인사 관리자 및 팀원을 포함한 직장 내 모든 사람들이 포괄적인 자세로 내향인들을 위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할 수 있도록 유용한 로드맵을 제공한다. 그리고 먼저 조직 내 내향인 친화성이 얼마나 높은지 결정해줄 조직 생활의 모든 측면(채용, 교육, 지도, 의사 소통, 회의, 직장 설계 등)을 검토하는 평가지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저자는 개방형 사무실을 내향인 친화적으로 만드는 방법, 내향인들이 팀 활동에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모범 사례, 내향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 기술 및 원격 직책을 수행하는 방법 등 내향인들이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직장 생활에 스며들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모든 직원들을 자유롭게 포용하고 조직 내에서 내향인들이 자신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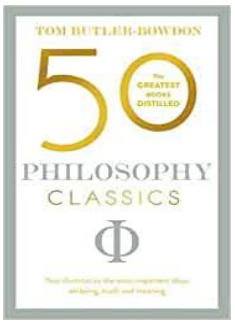
강점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새로운 직장 문화를 구축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필수 사항들을 제공하는 책이다.

<목차>

서문: 조직 내 내향인들의 힘을 활용하는 방법
제 1 장. 친내향인적 직장 문화를 위한 진단 퀴즈
제 2 장. 내향적인 사람들의 재능을 키우는 법
제 3 장. 내향인들을 지도하는 방법
제 4 장. 내향인들과 소통하기
제 5 장. 업무 환경 설정
제 6 장. 내향인들을 위한 원격 근무
제 7 장. 팀 구축하기
제 8 장. 내향인들을 위한 개발 및 교육
결론
부록

<저자 소개>

제니퍼 B. 칸와일러 (Jennifer B. Kahnweiler) 박사는 내향적인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글로벌 리더 중 한 사람이다. 그녀는 Merck, NASA, Bosch, 미국 화학 학회, Freddie Mac, 미국 질병 통제 센터 및 미국 관리 협회와 같은 주요 조직의 학습 및 개발 전문가이자 리더이다. 그녀에 대한 기사는 월스트리트 저널, 포브스, 포춘지에 실렸으며 전작으로는 『The Introverted Leader』, 『Quiet Influence』, 『The Genius of Opposites』가 있다. 또한 저자는 National Speakers Association 에서 인증된 전문 연사로 지명되었다.



제목 : 50 PHILOSOPHY CLASSICS

가제 : 클래식 필로소피: 소크라테스부터 마이클 샌델까지 - 위대한 사상가 50인과 그들의 철학 세계

저자 : Tom Butler Bowdon

출판사: Nicholas Brealey Publishing

발행일: 2017년 5월 4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철학

*** Benjamin Franklin Self-Help Award, Foreword Magazine's Book of the Year Award 수상**

*** 루마니아, 대만, 스페인, 일본, 러시아, 우크라이나 판권 계약**

*** "독특하거나 특이한 관점으로 이 세상과 인간의 삶을 바라보는 흥분감과 더불어 철학자들의 생각을 명료하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는 책"- 싱가폴 국립 대학교 철학과 교수, C.L. 텐**

'철학(Philosophy)'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사랑'을 뜻하는 'philo'와 '지혜'를 뜻하는 'sophy'가 만나 탄생한 단어이다. 개인의 세계관과 학문적인 관점 두 측면에서 철학은 사물에 대한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 더 나은 방법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려는 욕구에 관한 것이다. 옥스포드 영어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철학은 "현실을 알기 위한 지식과 진실을 추구하는 것, 특히 사물의 원인과 성격, 존재, 물질, 우주, 육체적 현상과 인간 행동에 대한 진실과 지식을 찾는 데 이성과 논쟁을 사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철학은 인간의 생각과 감각의 한계 안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실재인지,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기 위한 고차원의 사고를 의미한다.

또한 철학이라는 학문은 어떤 가정들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는 학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고단한 과정은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철학자들 역시 힘들게 만들었다. 그 중 조지 버클리는 우리 시대의 불확실성이 점점 극심해짐에 따라 철학자들이 우리가 익히 이해할 수 있을 법한 문제들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자신의 저서 『The Black Swan』에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개인적인 관점에서든 공적인 관점에서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면 이 세계는 항상 예측할 수 없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철학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며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들이다.

2,000 여 년간 철학은 인간의 경험과 현실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는 최고의 안내자 역할을 수행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에피쿠로스, 공자, 키케로, 헤라 클레이투스에서 17 세기 합리주의자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스피노자, 그리고 20 세기의 장 폴 사르트르, 장 보드리야르, 시몬 드 보부아르, 현대 사상가 마이클 샌델, 피터 싱어, 슬라보예 지젝에 이르기

까지 이 세계의 학문의 틀을 형성하고 철학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인물들과 저술들에 대해 탐구한다.

저자는 철학은 이제 더 이상 학계에만 국한될 수 없으며 철학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생각을 넓히는 도구로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인류의 위대한 정신과 생각하는 법, 행동하는 법, 이 세계를 보는 법에 대한 진중한 질문들에 대해 매료되게 만들어줄 훌륭한 철학서이다.

<목차>

서문

제 1 장. 한나 아렌트 The Human Condition (1958)

제 2 장. 아리스토텔레스, Nicomachean Ethics (기원전 4 세기)

제 3 장. J. 에어 언어, Truth and Logic (1936)

제 4 장. 줄리안 바기니 The Ego Trick (2011)

제 5 장. 시몬 드 보부아르 The Second Sex (1949)

제 6 장. 제레미 벤담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17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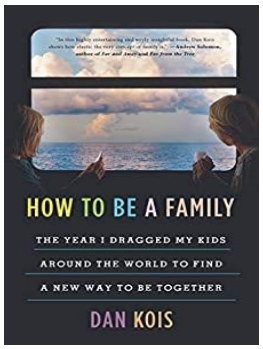
제 7 장. 앙리 베르그송 Creative Evolution (1907)

제 8 장. 데이비드 봄 Wholeness and the Implicate Order (1980)

(이하 생략, 총 50 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톰 버틀러 보우든 (Tom Butler-Bowdon)은 자기계발 문학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작가이다. 그는 『50 Classics series』는 Benjamin Franklin Self-Help Award, Foreword Magazine's Book of the Year Award 로 수상했다.



제목 : HOW TO BE A FAMILY

가제 : 패밀리 트립: 특별한 가족의 '세 달에 한 도시 살아보기 프로젝트'

저자 : Dan Kois

출판사: Little, Brown and Company

발행일: 2019년 9월 17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에세이, 여행

*** 2019년 뉴욕 타임즈, 엔터테인먼트 위클리 선정 'Best Holiday Books'**

*** 버즈피드 선정 'Holiday Gift Guide'**

*** "이 책은 우리 모두의 궁금해하는 가족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알려준다."- 「로스 앤젤레스 타임즈」**

유명 잡지인 슬레이트 편집자이자 자녀 교육 전문 팟 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저자 댄 코이스는 삶을 바꿀 여행을 시작했다. 절망에 빠져 있던 한 남자가 아버지로서 자신의 아이들의 삶에 변화를 선물하기 위해 떠난 세계 여행에서 과연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까?

저자와 아내는 다른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평범한 아버지였다. 워싱턴 교외에 거주하는 전문직 종사자들로서 두 부부는 이제 막 십대에 접어든 자녀들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했고 두 딸들과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논쟁을 벌일 때 빼고는 제법 화목한 시간들을 보냈다. 하지만 어느 새부턴가 저자는 딸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문득 행복을 이루려면 온 가족이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는 고민 끝에 아이들과 함께 3 개월씩 다른 도시,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기로 결심했다.

우리의 두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드는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 가족의 이야기에서 저자는 화려하고 편안한 도시를 떠나 지도에서만 본 낯선 곳으로 떠난 여정에 대해 들려준다. 저자의 가족은 약 1 년에 걸쳐 뉴질랜드, 네덜란드, 코스타리카 및 미국의 소도시 캔자스에서 머물며 '생활 여행'을 했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저자는 단지 바쁘고 산만한 삶에서 벗어나 다른 가족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지 보고자 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저자의 통통 튀고 개성 있으며 때론 심드렁하고 예민한 모습까지 보여주는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 코스타리카의 한 부엌과 모두가 서로의 이름을 알고 있는 다정한 마을을 사랑하게 된 여정을 보여준다. 또한 저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각 지역의 이웃과 공무원 및 학자들과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각 지역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 여행은 정말 저자의 가족의 삶을 바꾸어 놓았을까? 아니면 오히려 여행 내내 가는 곳마다 문제와 갈등으로 시름에 빠지게 되었을까? 그는 자신이 얼마나 '정상주의', 미국식 '헬리콥터

육아'에 집착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고 부모들은 결코 자신의 입맛대로 자녀들을 바꿀 수는 없지만 아이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 변화한다는 놀라운 진실을 깨달았다.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제들과 감동적인 순간들에 대해 담은 특별한 가족 이야기이다.

<목차>

넌 모든 걸 망치고 있는 중이야

뉴질랜드 1 월 — 4 월

제 1 장 : 8 호선 39

제 2 장 : 테 아로하

제 3 장 : 어떤 도보로든

굿바이 파티

네덜란드 4 월 — 7 월

유령 오리들

제 4 장 : 반항적인 태도

제 5 장 피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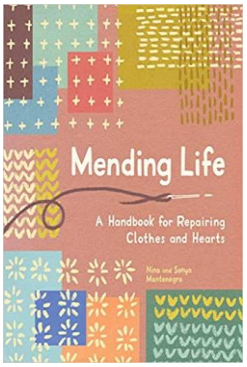
제 6 장. 폴더 모델

춤 발표회

(이하 생략, 총 10 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댄 코이스 (Dan Kois)는 팟캐스트 'Mom and Dad Are Fighting'의 진행자이자 New York Times Magazine의 기고가이자 잡지 Slate의 편집자이다.



제목 : MENDING LIFE

가제 : 고쳐 쓰고, 다시 쓰는: 소비주의에 역행하는 즐거운 바느질 생활

저자 : Nina Montenegro, Sonya Montenegro

출판사: Sasquatch Books

발행일: 2020년 5월 7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취미, 실용

*** "망가진 물건들 중 고칠 수 없는 것은 없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이 책은 독자들이 자신이 입고 다니는 '잘 낡은 옷', '좋아하는 옷'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책이다." - 북리스트**

*** "눈에 띄게 세련된 방법으로 옷을 수선하는 과정을 통해 초보자도 따라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책" - 포틀랜드 먼슬리**

오리건 주 포틀랜드에 살고 있는 자매이자 아트 스튜디오인 'the Far Woods'의 공동 창립자인 소냐 몬테네그로, 니나 몬테네그로는 기발한 삽화들과 더불어 누구든 따라 할 수 있는 의복용, 가정용 린넨을 수선하는 방법에 대한 이 책을 함께 썼다.

이 책에서 두 사람은 우리가 아끼는 옷과 소지품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쳐서 다시 잘 쓸 수 있도록 아름답고도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 준다. 이 책은 단지 수선법을 알려주는 실용서가 아니라 많은 물건들이 쉽게 버려지는 요즘 세상에서 소비주의에 대항하는 작은 반역 행위에 대한 탐구서이기도 하다.

이렇듯 두 저자는 계속해서 물건들을 버리지 않고 고쳐서 소중하게 간직하도록 우리를 격려한다. 또한 소비 습관을 바꾸어 이곳 저곳에 흠이 나고 망가진 곳을 약간만 잘 고쳐도 의류 및 기타 가정 용품의 수명이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는지 보여준다. 그리고 더 나아가 환경보호 책임론과 '놀이 정신'에 입각해 밀레니얼 세대들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내려 놓고 대담하게 바늘을 집어 들고 새로운 놀이, 새로운 창조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책이기도 하다.

또한 이 책은 이제 막 바느질의 세계에 입문한 초보자들을 위한 안내서일 뿐만 아니라 이미 수선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고급 기술을 제공하는 책이다. 따라서 패칭과 같은 기본 기술뿐만 아니라 장식을 만드는 '사시코 스티칭' 기술까지 초급 단계에서 고급 단계로 나아가는 기술에 대한 설명 또한 소개한다. 또한 두 저자는 우리가 망가진 물건들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단련하고 치유하는 과정에 담긴 진심 어린 이야기까지 독자들과 공유한다.

'버리는 것 대신 고쳐 쓰기', '수고하는 것이 아닌 놀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바느질의 세계로 젊은 밀레니얼 세대들을 인도하는 감각적이고 매력적인 바느질 수선 입문서이다.

<목차>

서문

시작하기

감침질

패치

기타 다른 수선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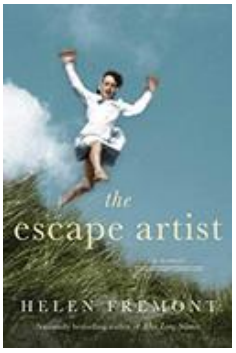
정신을 넘어서서

기타 부록

<수록 삽화>

<저자 소개>

니나 몬테네그로와 소냐 몬테네그로 (Nina Montenegro, Sonya Montenegro) 자매는 인쇄업자이자 수선공이며 양봉가이자 정원사이다. 2013 년, 두 사람은 농지 윤리, 자연에 대한 경외, 지배적인 약탈 정신을 거부하고, 음식의 직결과 관련된 문화적 변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창조적 협업체인 Far Woods 를 설립했다. 그들의 예술 작품들 중 다수가 이러한 취지에 맞는 교육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실용적인 방법으로 생태적, 사회적 대안을 찾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두 사람의 스튜디오는 오리건 주 포틀랜드 외곽의 한 유기농 농장에 있다



제목 : THE ESCAPTE ARTIST

가제 : 비밀, 그 후: 가족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내 인생은 송두리째 변했습니다

저자 : Helen Fremont

출판사: Gallery Books

발행일: 2020년 3월 1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회고록

*** 베스트셀러 회고록 『After Long Silence』의 후속 신작**

*** "비참하고도 때로는 우습기까지한 가족의 이야기" - 베스트셀러 『The Art of the Wasted Day and A Romantic Education』의 저자, 패트리샤 햄플**

*** "외상과 그 여파에 대한 탐욕적인 탐구" - 『Little Panic』의 저자, 아만다 스턴**

1992년 헬렌 프리몬트는 보스턴에서 국선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당시 그녀는 적대감과 격렬한 애정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던 언니 라라의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그 놀라운 전화 통화를 한 후 둘은 급격하게 가까워졌다. 라라는 저자에게 그들의 부모가 항상 말해왔던 것과는 달리 가톨릭 교인이 아니며 유대인이었고 '홀로코스트'라는 차마 말할 수 없는 공포의 산 증인이었으며 제 2 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과 소련이 점령했던 폴란드에서 양가 가족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털어 놓았다. 중산층 미국 생활의 안온함 아래 몇 십 년 동안이나 봉인되어 있던 프리몬트 가문의 비밀은 가족을 무너트리기 시작한다. 정신적 불안과 슬픔과 분노로 괴로워하던 저자의 어머니 마리아가 다음 세대를 희생시키지 않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았던 것이다.

자매들이 자신들이 알게 된 어마어마한 사실을 마리아와 코빅 즉 그들의 부모님께 고백하자 두 부부의 삶은 완전히 황폐해지고 말았다. 언니 라라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저자가 가족에 대한 회고록인 『After Long Silence』를 발표했을 때, 어머니 마리아는 저자와 더 이상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2년 후 저자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마리아는 저자에게 아버지의 유언장과 유언장에 추가된 내용을 첨부한 우편물을 보냈다. 유언장의 내용에 따르면 저자는 이제 자신의 부모님과 절연 상태였고 이미 사망한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가족에 대한 회고록을 썼다는 이유로 '비유적인 죽임'을 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만약 정말 자신이 글을 쓴 게 죄라면, 과연 작가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고민했고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다시 또 이 회고록을 썼다.

이 책에서 그녀는 어머니의 의지와는 반대로 예상치 못한 고통스러운 진실을 알게 된 과정과 비밀 유지를 위해 철저히 헌신했던 부모님의 삶과 이 과정에서 생성된 가족의 역학에 대해 깊이 탐구한다. 감동적이면서도 진솔하고 때로는 웃기기까지 한 이야기들 속에서 저자는 겉으로는

가톨릭 신자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나치 점령 폴란드의 유대인 생존자들인 부모와 함께 열악한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어떤 삶이었는지 들려준다. 또한 저자는 가족 상담 치료, 식이 장애, 자주 정신을 잃는 증상을 가지고 있던 언니에 대한 이야기와 성적 정체성을 알아내기 위해 저자가 겪어야 했던 숱한 연애 경험들에 대해서도 들려준다. 저자는 진실을 숨기고자 하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결국 진실이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궁극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한다. 회고록 역사상, 위대한 흔적을 남길만한 훌륭한 작품이다.

<저자 소개>

헬렌 프레몬트 (Helen Fremont)는 베스트셀러인 『After Long Silence』의 저자이다. 저자의 소설과 논픽션은 O. Henry Awards, Ploughshares, The Harvard Review 등의 수많은 저널과 선집에 실렸다. 또한 저자는 Warren Wilson MFA Program for Writers 프로그램을 졸업했으며 Bread Loaf 와 Radcliffe Institute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